

자이언트스텝,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서 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 선보

- ▶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 2024년 12월 13일~2025년 1월 5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전시
- ▶ 자이언트스텝,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의 기획 및 총괄 담당...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 전시
 - ▶ 자이언트스텝의 콘텐츠 기술력, 서울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매력을 선보일 것

[2024-12-24]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기업 자이언트스텝(289220)이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 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광화문과 세종문화회관 등 일대 건물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쇼와 미디어 체험 행사이다. 지난 행사에서는 189만여 명이 방문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미디어 파사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의 주제는 '루미너스 심포니(LUMINOUS SYMPHONY): 빛의 파도, 서울을 노래하다'로 광화문의 전통과 현대 첨단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광화문 광장과 주변 거리에 대형 루미나리에(luminarie) 조형물을 설치하여 빛의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자이언트스텝은 지난 8월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의 미디어아트 기획 및 행사 대행사로 선정됐다. 회사는 이번 행사의 미디어 파사드 쇼, 조명 연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했다.



(사진) 서울라이트 광화문 2024.

자이언트스텝은 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인 '루미너스 심포니(Luminous Symphony) : 빛의 교향곡'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콘텐츠 기술력을 선보일 방침이다. '루미너스 심포니'는 빛을 활용해 공간을 재해석하고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표현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비전을 담아내며 피날레에서는 지구와 우주의 웅장함을 빛으로 형상화했다.

메인 전시인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자이언트스텝의 작품 외에도 ▲<A shining journey, 빛의 여정> ▲<Suprême Ultime(Past-Present-Future), 최고의 궁극(과거-현재-미래)> ▲ELEMENTAL SYMPHONY, 자연 교향곡> ▲<erehwon, 이상향> ▲<오픈콜 선정작 5편>으로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자이언트스텝 관계자는 "자이언트스텝이 기획 및 총괄한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성공적으로 개막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이언트스텝의 콘텐츠 솔루션뿐만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오는 13일 개막식에 이어 퍼레이드, 31일 2025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라이트 광화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공식 홈페이지 : www.seoulightgwanghwamun.com/web/php/main.php)